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hild-rear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Young Children

이주연¹

Joo-Yeon Lee¹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learn from Korean female defectors about their views of child-rearing experiences in South Korea. This study explored how 7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young children developed child-rearing microideologies that acknowledge both North Korean cultural ideology and South Korean cultural ideology.

Methods: To examine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hild-rearing experiences, indepth interviews with 7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young children were conducted.

Results: Four theme clusters, 11 themes, and 47 meanings were found from a phenomenological analysis with indepth interview data. Based on the themes, three types of child-rearing microideologies were identified: (1) separation, (2) assimilation, and (3) integration. Each type of child-rearing microideology can be understood with a meaningful phrase "there is no choice", "nevertheless" and "because I came here to be better," respectively.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provides knowledge on the individual-specified child-rearing strategy of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with young children and suggests the necessity of diverse policy proposals based on the child-rearing microideology types.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과제번호: 2013-0844)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¹ 제1저자(교신저자)

전남대학교 생활복지학과 부교수
(e-mail : idscot@jnu.ac.kr)

key words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child-rearing experience, young children,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000년 이후 연간 1,000명 이상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9

월 현재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29,830명으로 3만명에 육박한다. 그 중 여성이 21,114명, 남성은 8,71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약 80%를 차지한다(통일부, 2016). 성별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2002년 이후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면서부터 나타나 2016년 현재까지 그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2012년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제2하나원) 시설을 늘려 여성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있다. 학계에서도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연구가 2000년에는 한두 편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편 이상으로 조사되는 것 또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반영한다(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을 입국 당시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0-9세가 1,241명, 10대 3,459명, 20대 8,350명, 30대 8,602명, 40대 4,970명, 50대 1,603명, 60대 이상 1,239명으로 29,464명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57%의 과반 이상으로 나타난다(통일부, 2016). 그리고 자녀와의 동반 입국 증가로 인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수도 5,000명에 달한다. 이처럼 북한이탈주민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족형성기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녀와의 동반입국에 따른 북한이탈 아동의 증가와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은 물론 그들 자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에는 북한이탈여성과 그들 자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초기 연구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과 적응에 초점을 두고 그 내용 중 일부로 북한이탈여성의 가정생활 적응을 다루었다(김영수, 2000; 이금순, 2006; 이기영, 성향숙, 2001). 그러나 더욱 최근에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자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장정은과 최정숙(2014)은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최희와 강현민(2016)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탈북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참여 실태를, 김성남과 양옥경(2015)은 교육적 경험을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제3국 출신아동을 둔 북한이탈여성을 연구한 이기영, 김민경 그리고 백정원(2014), 자녀양육경험을 근거이론접근에 의해 분석한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 그리고 최여희(2010), 북한이주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홍누리와 김희진(2015), 그들의 양육특성과 자녀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권정윤, 조혜영 그리고 김미경(2013) 등의 연구는 모두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초점을 둔 최근의 연구들이다.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생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들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적응뿐 아니라 부부관계나 자녀양육 등 미시적인 생활적응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한다(이기영 등, 2014; 홍승아, 2013). 이들이 자녀양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양육태도 및 범위에서의 문화적 차이, 남한의 교육시스템에 대한 부적응, 자녀와의 문화적 세대갈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부 간 불일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김성남, 양옥경, 2015; 최희, 강현민, 2016; 홍승아, 2013). 그리고 이러한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문제는 스트레스를 야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적응과 심리적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김재엽, 류원정, 김지민, 2014; 이부미, 2005), 더 나아가 자녀의 문제행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다(권정윤 등, 2013). 따라서 북한이탈여성과 그들 자녀의 적응과 발

달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대상의 특수성 및 선행연구의 상대적 희소성 등으로 인해 대부분 질적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탐색적 연구로 수행되었다(김성남, 양옥경, 2015; 이기영 등, 2014; 장정은, 최정숙, 2015; 최희, 강현민, 2016). 특히 현상학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라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조사 자료를 의미중심으로 분석하여 몇 개의 범주와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성남과 양옥경(2015)은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양육자로서의 문제해결 및 대처, 자녀양육 및 교육에서 어머니의 역할 터득 등 3개의 범주를 도출하였고, 홍승아(2013)는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에 대한 기대, 통일에 대한 기대의 4가지로, 이기영 등(2014)은 직장을 유지하는 나의 노력,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한계에 부딪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냄 등 4개 주제를 제시하였다. 각 연구마다 주제 및 범주의 수나 사용용어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북한이탈여성이 양육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고군분투하며 해결책을 찾는 일련의 과정을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로 분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 밖에 홍나미 등(2010)과 박현정, 김윤수 그리고 박호란(2011)은 근거이론접근 방법에 의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에 의한 연구들과 달리 근거이론 방법에 의한 이들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과정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제공한다. 홍나미 등(2010)은 8명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86개 개념과 11개의 범주를 도출하였으며, 범주들 간의 관련성에 대해 패러다임모형을 제시하고 과정분석을 통해 자녀양육경험을 진입기, 직면기, 분투기, 재조정기를 거쳐 자녀에게 미래결기의 단계적 과정으로 이론화하였다. 이 연구에서 핵심범주로 소개하고 있는 ‘탈북의 상흔 감내하며 자녀에게 미래 걸고 버텨내기’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을 연구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대한 통합적 패러다임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나 해결책, 영향력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제언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방법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관점의 선행연구들은 경험의 의미를 나열하고 의미들 간의 관계를 구조화함으로써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횡단적으로 관통하는 주요한 본질을 찾는 데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분석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현상학적 연구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그 결과 경험에 대한 통합된 의미를 발견하고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연구 참여자들의 공유된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자녀양육에 대한 보편적인 의미에 주로 집중한다. 그에 따라 북한이탈 여성들이 자녀를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하는지와 같은 경험의 본질이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양육과정 중 나타날 수 있는 개별 혹은 집단 간 유사성 및 차이점 또는 독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본질을 밝히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본질의 표현적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 또한 의미있으리라 사료된다.

근거이론 접근법으로 수행된 홍나미 등(2010)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범주별 속성과 차원(심함-약함 / 적극적-소극적 / 많은-적음 등)으로 모형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탈 여성들이 자녀양육과정에서 모두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별로 자녀에 대한 가치나 교육관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유사한 경험에 대해서도 다르게 인식하거나 혹은 대처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근거이론 접근법의 연구목적은 경험 자체에 대한 기술이나 의미파악이 아닌 경험분석을 통한 이론모형의 제시에 있다. 따라서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러한 본질이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현상학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파악함은 물론, 본질을 구성하는 실제적 경험들에서의 연구대상자 간 차이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인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일반화시켜 받아들이기 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사고를 통해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된다(Lee, 2004; Uttal, 1996). 이러한 미시적 이데올로기(microideology)는 개인이 겪은 과거의 경험과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 변화되고 형성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은 남한 사회의 거시적 양육시스템과 양육관련 가치관을 북한이탈여성들이 어떠한 미시적 이데올로기로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자라온 방식과 양육 경험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 연구들은 연구대상자의 특성이 포괄적이거나 특정 연령대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즉,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들은 연구대상자 표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자녀 연령에 대한 제한없이 연구대상자를 표집한 경우가 대부분이며(이기영 등, 2014; 홍나미 등, 2010; 홍승아, 2013), 자녀의 연령대 중에는 특히 초등학생(김성남, 양옥경, 2015; 최희, 강현민, 2016) 또는 청소년(장정은, 최정숙, 2015) 자녀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나 부모자녀 관계나 부모의 역할, 양육과 관련된 요인들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Bigner & Gerhardt, 2013), 자녀 또한 연령에 따라 발달특성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Papalia, Olds, & Feldman, 2013) 다양한 연령대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들은 또래로부터의 낙인 경험에 의해 소외감을 호소하며(김영하, 2010), 학교부적응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청소년기의 발달특성 상 또래관계나 학교적응이 주요 영향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경험은 영유아들의 경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이탈여성이 보고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으로 인한 취업제한을 주요 어려움으로 보고한 반면, 청소년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은 자녀의 학업이나 적응 등에 대한 부모역할 부재를 주로 호소한다(홍승아, 2013). 따라서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는 자녀의 연령대를 다양화시킬 뿐 아니라 특정하여 살펴볼 때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연령대 중 20~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영유아기의 어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양적연구설계를 통해 일반어머니의 양육과 비교(홍누리, 김희진, 2013)하거나 어머니의 양육변인에 따른 영향을 분석(권정운 등, 2013)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즉,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여성으로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기쁨이나 어려움과 같은 일상 속의 다양한 경험과 자녀에 대한 기대, 양육가치, 자녀의 의미 등을 파악함으로써 자녀양육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남한 사회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부모역할수행의 과정에서 양육에 대한 미시적 이데올로기가 개인에 따라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이해는 자녀양육이라는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북한이탈여성과 그들 자녀의 생활적응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여성들을 위한 자녀양육 및 생활지원의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여성의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을 연구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질적 연구는 연구대상자로부터 수집된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순환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Mason, 2002), 따라서 연구대상의 독특한 경험을 이해하기에 적합한 연구설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경험을 그들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그 의미를 그들의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경험의 주체가 자신의 언어를 통해 경험과 생각을 기술하고 이로부터 도출되는 의미에 기초하여 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상황적 맥락 안에서 경험자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다(Denzin & Lincoln, 2011).

현상학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수집 방법으로 심층면접을 들 수 있다. 심층면접은 특정 현상에 대한 세밀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사용하며,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의 지각을 통해 특정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Mason, 2002; Patton, 2014).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지 3년 이상이 된 여성으로, 한국에서 출생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상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입국한 지 3년 이상으로 선정조건을 정한 이유는 입국 초기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높다는 선행연구(강차연, 2005)에 근거한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정착의 관점보다는 그들이 한국에서 새롭게 경험하는 자녀양육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국시기를 한정함으로써 입국초기 정착과 관련한 높은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선정은 자료수집과 분석을 병행하며 새로운 정보가 도출되지 않는 자료포화 시까지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7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같은 연구참여자의 수는 현상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Morse & Field, 1995, 김성남, 양옥경에서 재인용, 2015). 연구 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통해 이루어졌다. 표집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의해 의도적 표집을 활용하였으며 추가적 표집의 경우 눈덩이 표집방법을 이용하였다. 북한이탈가정의 영유아가 많이 재원하고 있는 인천의 2개 어린이집에 요청하여 북한이탈가정의 어머니에게 연구 참여를 의뢰하였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3명의 북한이탈 어머니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으며, 이후의 참여자 표집은 해당 어머니를 통해 눈덩이표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은 2014년 11월에서 2015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행되었다. 연구 참여자와의 초기대면은 라포형성을 위해 면접조사 없는 만남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대해 소개하고 심층면접을 위한 안내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면접 일정을 논의한 후 2차 만남부터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횟수는 참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최소 2

<표 1>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연령	자녀수	취업유무	영유아 자녀의 연령	입국년도	배우자 동거	배우자 출신국
A	35	아들1	미취업	1	2008	o	북한
B	42	아들1	취업	5	2004	o	한국
C	39	딸1	취업	3	2010	o	북한
D	46	아들1, 딸1	미취업	3	2008	o	한국
E	40	아들1	취업	5	2004	x	-
F	38	아들1, 딸2	취업	4	2006	o	북한
G	38	딸2	취업	2	2007	x	중국

회 이상 최대 4회까지였다. 면접은 연구 참여자를 연계해준 어린이집 회의실, 카페, 혹은 연구 참여자의 직장, 집 등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곳에서 이루어졌고, 1회당 약 1시간 30분~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첫 면접 시작 전에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설명한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을 이해하기 위해 전반적인 자녀양육 상황, 자녀에 대한 가치,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 및 기쁨, 자녀와의 관계, 자녀에 대한 기대 등은 물론 가족생활, 부부간의 부모 역할구조, 부모로서의 효능감, 삶의 목표, 삶의 만족도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반구조화된 면접질문지를 토대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모든 면접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면접 동안에는 가능한 메모를 자제하고 면접 직후 주요한 내용을 기록하였다. 기존에 본 연구자가 수행했던 다른 연구에서 면접자가 면접도중 기록을 하게 될 때 피면접자가 기록내용에 관심을 보이거나 기록에 도움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야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현상을 발견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면접에 방해요인을 제거하고자 면접장면에서의 기록을 자제하였다.

4. 자료분석

현상학적 연구의 자료는 현상과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본질(essence)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Creswell, 2012; Creswell & Maitetta, 200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본질의 분석을 위해 먼저 사례 내 분석(within-case analysis)과 사례 간 분석(cross-case analysis)을 통해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중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례 간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자녀양육 관련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을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Moustakas(1994)가 제안한 단계별 자료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면접내용으로부터 의미있는 기술들(significant statements)을 선별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기술들로부터 일관된 내용요소(invariant constituents)를 결정하였다. 다음으로 일관된 내용요소를 주제별로 묶는 작업(clustering/thematizing)을 수행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핵심 주제에 기초하여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원문 그대로 기술하는 작업(Individual Textual Description)을 거쳤고,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들의 지각과 의미의 관점에서 재기술하였다(Individual Structural Description). 이후의 두 단계에서는 개별 연구 참여자의 기술내용을 바탕으로 전체 집단의 경험을 원문 그대로 기술(Composite Textual Description)하고 다시 의미의 관점에서 재기술(Composite Structural Description)하였다. 이 분석단계는 개별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유사하거나 다르거나 혹은 독특한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단계에서는 앞의 두 가지 작업을 통합(Composite Textual-Structural Description)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통합된 의미와 본질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서 도출되는 의미요소, 주제, 주제범주를 파악함으로써 해당 현상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료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개인 간 차이점 혹은 유사점에 주목하여 Moustakas(1994)의 자료 분석 단계 중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단계에서

개별 사례 간 비교에 초점을 두어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도출된 주제를 바탕으로 사례 간 재분석을 통해 자녀양육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을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전체로서의 경험과 현상의 본질만을 파악하고자 했던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분석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최대한 솔직하게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하도록 편안한 면접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경우에 따라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는 등 가능한 한 자연스러운 일상적 만남의 분위기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 역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라는 공통점을 언급하는 자기노출 방식을 통해 일상적인 양육경험과 양육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면접내용 중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선 판단이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연구 참여자 2인에게 최종 분석결과에 대한 면접자검토를 요청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3가지를 들 수 있다 (Fontana & Frey, 2000). 첫째, 연구참여의 자발성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연구참여 동의서에 날인을 받는 것으로 확보하였다. 두 번째의 윤리적 고려점은 연구 참여자가 연구참여로 인해 어떠한 신체적, 정서적 해도 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답변을 거부하거나 연구참여 자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밀보장을 위해 모든 연구 참여자의 표기는 기호로 처리하고, 탈북경험으로 인한 신분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석 및 결과제시의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노출하지 않는 등 익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Ⅲ. 연구결과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자료를 분석하여 4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 및 47개의 의미요소를 도출하였다(<표 2> 참조). 4개의 범주에는 자녀양육의 어려움,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의 자녀, 남한사회에 대한 원망과 기대, 양육전략 찾기 등이 포함된다. 이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기존연구들의 범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북한이탈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일상 사건들에 대한 생각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 양육관 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유사한 경험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를 부여하거나 혹은 다른 행동 전략을 선택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남한 사회의 차별이라는 동일한 경험도 연구

〈표 2〉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 주제 분석

의미요소	주제	범주
아이에게 매어 있음 육체적으로 힘들 일과 양육 병행의 어려움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음	양육 자체의 어려움	자녀양육의 어려움
양육방식이 다름 남한의 교육을 잘 모르겠음 자녀에게 너무 많이 가르친다고 느낌 예측할 수 없는 자녀의 미래 (한국/영어)말이 어려워 쉽게 이해가 안됨 (한국인) 남편과 자녀양육에서 의견충돌을 경험함 아이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함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한 어려움	
정보공유 노력에 실패함 물어볼 데가 없음 엄마들과 친해지기 어려움 주변에서 얻는 양육관련 정보가 부정확함	정보공유의 어려움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사람인 아이 나와는 다른 자녀 인식하기 탈북 사실에 대한 절대적 비밀 북한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음	나와는 다른 존재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의 자녀
변하지 않는 존재인 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정체성을 느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남한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음 정체성 다지기 남한 사람도 북한 사람도 아님	주변화에 대한 두려움	
편견을 경험함 자녀에게 전이되는 편견 경험 탈북자에 대한 남한사회의 부정적 인식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	남한사회에 대한 원망과 기대
편견에 대해 이미 예상함 편견에 신경쓰지 않기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소속되지 못하는 불안감 떨치기	수용하기	
남한의 자유, 평등문화 누리기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 처음보다 많이 적응함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남한생활의 만족	
적극적으로 양육지식 넓히기 새로운 환경을 만들고자 함 사회적 지원 활용하기 남한 친구 만들기 위해 노력함 남편에게 의지하기 한국 사람으로 키우기	남한사람 되기	양육전략 찾기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다른 북한이탈어머니에 대한 동질감과 안도감 내가 자랄 때와 다르지 않음	자연스럽게 양육하기	
양육방식을 비교함 더 나은 것 취사선택하기 자녀양육의 기준 세우기	목적지향적 선택	

참여자에 따라 자녀양육 경험에서는 전혀 다른 동기요소로 작용하였다. 즉, 차별 경험으로 인해 남한사회로의 진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반면, 더 적극적으로 남한의 양육방식을 받아들여 남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를 적응전략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자녀양육에 관한 3가지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들 3가지 유형의 명명화를 위해 Berry(1997)와 Castro(2003)의 문화접변 개념 및 유형을 활용하였다.

소수민족의 주류사회에 대한 적응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문화접변(acculturation)의 개념 및 유형을 들어 적응에 따른 개인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분석하였다(Berry, 1997; Castro, 2003; Lieber, Chin, Nihira, & Mink, 2001; Ward & Rana-Deuba, 1999). 문화접변이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때 이들 문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뜻한다(Berry, 2002). 문화접변은 민족문화와 주류사회에 대한 태도의 2가지 독립된 개념을 중심으로 통합, 분리, 동화, 주변화 등의 4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Castro, 2003). 소수민족의 문화접변 형태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통합(integration)은 민족문화와 주류사회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적응결과를 보고한다. 이와는 정반대로 민족문화 또는 주류사회 문화 중 어떤 것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변화(marginalization)라 한다. 동화(assimilation)는 민족문화를 거부하고 주류사회의 문화를 선택하는 전략이며, 분리(separation)는 주류사회의 문화를 거부하고 민족문화를 고수하는 적응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Castro(2003)가 제안한 문화접변 전략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을 구분하였다. Castro(2003)는 문화접변의 4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2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1) 민족문화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

〈표 3〉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관련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

유형	분리	동화	통합
설명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이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익숙한 집단문화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양육함.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선입견을 거부하고 자신의 배경을 숨기고 싶어함. 자신과는 다른 자녀를 위해 기꺼이 남한사람이 되고자 함.	과거 북한생활로부터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남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인지함. 두 가지의 문화와 가치관 중 취사선택하여 자녀를 양육함.
대표적 의미 어구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려고 왔으니까”
관련 주제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 편하고 자연스러움 문화적 이질감	나와는 다른 존재로 서의 자녀 남한사람되기 주변화에 대한 두려움	예상한 결과를 받아 들임 남한생활의 만족 목적지향적 선택
의미 요소	편견에 대한 경험 정보공유의 어려움 변하지 않는 존재 편하고 자연스럽게 동일경험에서 오는 안도감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사회적 지원 활용하기	편견에 대한 경험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 절대적 비밀 정보공유의 어려움 그래도 남한사람 되기 정체성 다지기 나와는 다른 자녀 소속되지 못하는 불안감	편견에 대한 경험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 변하지 않는 존재 취사선택 정체성 다지기 나와는 다른 자녀
참여자	A, C, F, G	B	D, E

는지와 2) 다른 민족집단(주류사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지의 질문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남한의 양육방식 지향이나 북한의 생활습관 및 양육방식 고수, 본인 및 자녀의 정체성 인식, 자녀양육 전략의 선택 기준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의 미시적 이데올로기를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주변화를 제외한 분리, 동화, 통합의 3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표 3> 참조).

1. 분리

분리유형으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들은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이나 문화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익숙한 문화집단을 선택하여 탈북여성들끼리의 정보공유나 지원을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양육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정보의 교류, 특히 남한의 교육제도나 복지제도 등에 대한 지식은 비슷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잦은 교류, 그리고 더 나아가 주류사회로부터 그들만의 분리로 굳어져가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라는 대표적 의미 어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리라는 자녀양육 유형의 선택은 적극적이기 보다는 수동적 혹은 소극적 선택의 결과로 보여진다.

1)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

분리유형으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주변 한국인들의 편견과 차별을 주류사회에 대한 동화 노력을 방해하는 일종의 장벽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이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는 인식하였다.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좋아하는 짝궁 아이 엄마한테 인사도 먼저 하고 했었죠. 근데 별로... 싫다고 하는 건 아닌데 좀 그래요. 표정도 그렇고...”(C)

“겉으로는 안그래도 눈치가 안 그런데... 놀이터에서 우리 애가 같이 (남한 아이와) 놀고 있으면 그 엄마가 애한테 갑자기 집에 가자하고 그래요.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F)

이처럼 남한사회로부터의 낙인경험은 북한이탈여성들끼리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는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같이 어울리면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A의 이야기는 편견에 대한 그들의 거부적 반응전략을 보여준다. 더불어 북한이탈여성들은 남한 사회의 편견이라는 부정적 경험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동일한 경험에 대한 안도감을 느끼고, 이는 그들끼리의 결속과 남한사회로부터의 분리경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 탈북한 사람들은 다 느껴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느끼는 거니까. 탈북한 사람이라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가난한 불쌍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거 있어요. (중략) 애들도 그렇게 보니까 괜히 일부

러 (남한 애들과) 같이 놀게 하지는 않아요.”(G)

2) 편하고 자연스러움

분리 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탈 경험을 가진 자신들끼리의 어울림이나 자녀들끼리 놀게 하는 것이 편하고 자연스럽다고 표현하였다. 하나원에서 생활 이후 비슷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된 것 역시 북한이탈여성들 간의 교류를 강화시킨 물리적 조건으로 보인다.

“같은 동네니까... 자연히 그렇죠. 애들 나이도 비슷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이를 잠깐 맡기기도 하고 잘 노니까...”(C)

“소개해줘서... 아는 언니가 우리 같이 내려온 언니가 소개해줬어요. 여기(어린이집)에 많이들 다닌다고 해서 집이 지내 멀어도 여기로 다녀요. 힘들어도 편해서... 예전에 다녔던 데는 뭘 얘기해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이리 미국말을 많이 써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데 맨날 물어보기도 힘들고...”(F)

“여기(북한이탈여성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취업처)서 같이 일하니까 매일 만나요. 그만 두고 다른 일해도 가끔씩 연락하고 오면 그 때 만나요.”(G)

비슷한 경험과 문화를 공유하는 북한이탈여성들끼리의 편하고 자연스러운 결속은 남한 사회에 대한 동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하기도 한다.

“어린이집 엄마들 중에 몇몇이 있어요. 거의 매일 보죠 뭐... 다른(남한가정) 엄마들은 안 친하니까... (중략) 큰애가 있는 언니가 있어서 많이 알려줘요.”(A)

3) 자녀양육에서의 문화적 이질감

북한이탈여성들은 영유아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남한의 교육문화 및 제도 등에 이질감과 양육 방식에 대한 괴리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괴리감은 그들이 자라온 방식에 의해 형성된 가치관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남한 사람들은 아이한테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켜요. 그렇게 해야 된대요. 운동체육도 학원에 보내고... 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데... (중략) 어린이집 친구들이 자기 뭐뭐 피아노랑 그리기랑 그... 뭐... 태권도랑 뭐 그런 거 한다고 자랑하니까 지도 하고 싶다고...”(F)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 데려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안 그래요.”(C)

“북한사회에서 자랐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교육받고 학습받아서 생각하는 게 여기 사람들이랑 다르죠.

쉽게 변하지 않아요. 고조 거기에 익숙하죠.”(G)

북한과는 다른 양육에서의 이질감은 적극적인 분리 이데올로기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앞서 소개한 자연스러움에 의한 특성이 분리유형으로의 다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선택이었다면 문화적 이질감에 의한 분리적 성향은 적극적이고 자의적인 분리유형으로 볼 수 있다.

“난 그렇게 안 키워요. 여기 사람들은 아이한테 너무 뭘 많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말마다 마트같은 데서 선물사주고 놀이하는 데 데려가고...”(F)

2. 동화

동화유형의 미시적 이데올로기로 분류된 연구 참여자 B는 자녀가 한국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그 노력의 정도는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넘어 완전한 한국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이 본인의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는 더욱 방해가 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한국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차별과 소외의 경험이 원인으로 내재되어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겪은 차별 경험은 자녀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남한사람으로 살게 해야겠다는 신념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사회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동화노력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동화 유형의 자녀양육 경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사람이 되어야 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1)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의 자녀

동화라는 미시적 이데올로기의 형성에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는 자녀의 존재가 그 중심에 있다. 연구 참여자 B는 북한이탈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본인과 남한에서 태어난 자녀의 정체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녀를 남한 사람으로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도 말한다.

“여기서 태어났으니 당연히 남한사람이죠.”(B)

“어리니까(엄마의 탈북경험에 대해) 얘기할 필요도 없지만, 얘기한다 해도 알 수도 없어요. 내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사람이 되는 게 맞지요. (중략) 남편이 많이 알려줘요. 남편이 여기 사람이니까 남편 말대로 아이한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거든요. 여기 방식대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B)

2) 남한사람 되기

동화의 유형으로 분류된 B는 면접내용의 많은 부분을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자신의 고군분투

과정에 활애하였다. 남한 사회에서 느낀 소외감이나 편견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를 다른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즉, 분리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이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에 의해 남한사람 되기를 자의적 혹은 타의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달리, 그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남한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한사람들의 편견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당했을 때는 기분이 나쁘지만... 아무래도 다르죠. 우리는 북한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남한 입국하기 전에 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남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래도 다르게 보겠죠.”(B)

B에게 있어 남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였다. 또한 매우 구체적이었으며 끊임없이 다양한 시도를 하는 과정 중임을 드러냈다.

“학교들어가기 전에 이사해야죠. 이사 갈꺼예요. 여긴 사람들이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사실을) 좀 아니까... 많아요 주변에 우리같은 사람이.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만나니까 안 좋지... 난 잘 안만나려고 해요”(B)

“(남한가정의 같은 반 친구아이들) 집에 놀러오라고 자꾸 그래요.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아이 봐준다고...”(B)

B의 남한사람 되기는 자녀에게 자신의 탈북사실을 비밀로 하려는 강한 의지로도 표현된다. 북한이탈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러한 현상은 주변 사람들의 편견에 대한 방어기제로 나타나기 보다는 불필요함으로 이해된다.

“아이한테는 (엄마가 탈북했다는) 말 안했어요. 남편도 싫어하고... 굳이 말해서 뭐해요.”(B)

3) 주변화에 대한 두려움

북한 말씨 때문에 주변에서 자주 조선족으로 오해한다는 연구 참여자 B의 이야기는 남한사람이 되기 위한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남한 사람이 된다는 것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주변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즉, 남한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면서 동시에 북한이탈주민 사회로부터의 능동적, 수동적 고립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다.

“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남한가정) 엄마들이랑 친해지려고 하는데... 엄마들 모임도 자주 나가고 하는데 여기(북한이탈가정)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해요”(B)

B는 남한사람들과 친해지려 노력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북한이탈주민들의 눈에는 과도하게 비쳐진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더 큰 우려는 자녀가 자신의 존재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북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아이도 6살인데 이제 알게 되니까 잘 안만나요. 우리 아빠는 여기 한국 사람인데 엄마는 다르니까 그게 아이가 헛갈리겠죠.”(B)

3. 통합

“저는 여기서 주민증도 받고 정식으로 살고 있으니까 남한사람이지만... 또 남한사람이라고 보기도 힘들니다. 너무 다르니까요. 겉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속은 좀 아직 북한 사람... 섞인 거 같기도 합니다.”(E)

“(남한과 북한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해...) 어떤 게 맞다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각자 배운 게 다르고... 남조선 사람들끼리도 각자 다르니까 우리나 마찬가지죠.”(D)

연구 참여자 E가 자신을 설명한 위의 내용은 통합 유형의 특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D는 남한과 북한의 자녀양육 방식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이처럼 통합유형의 미시적 이데올로기는 이중적인 경험이나 병행적 특성에 대해 언급한다. 그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느끼기 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으로서 통합적인 자녀양육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대처한다. 북한에서의 경험이나 북한사람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남한사회 적응에 대한 당연한 제약 사항임을 인식하였으며, 자라온 환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자신이 완전히 남한사람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언급한다.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무의미한 일일 수 있다. 오히려 이들은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상관하지 않고 자녀양육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좋으려고 왔으니까”라는 대표적 의미 어구는 자녀양육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목적지향적인 그들의 적응양상을 대변해준다.

1) 예상한 결과를 받아들임

통합유형의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양육과정에서 남한 가정의 어머니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의 어려움을 예상한 결과로 인식하였다. 자신들은 남한 가정의 어머니들과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완전히 같아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남한 가정의 어머니들 역시 자신들의 생각이나 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의 적응방식이며, 여기에는 자신이 남한 가정의 어머니와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물론 그로 인한 남한사회의 선입견이 모두 포함된다.

“과거를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내가 북에서 나서 자란 것은 그대로 있는 거고 또 지금 남한에서 살고 있는 것은 또 그 위에 쌓이는 거죠. 여기서 10년 20년 살다보면 남한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예전에 북에서 살았던 게 없어지나요? (중략)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고치기 어렵습니다.”(E)

“(남한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다 싶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 다 생각하면 어떻게... 골 아파서...

그냥 상관안하는 게 편하죠.”(D)

이중적 정체성의 표현은 자녀에게도 해당된다.

“OO(자녀이름)이는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고 당연히 (한국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지요. (중략) OO이는 커도 자기가 북쪽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뭐... (중략) 탈북가정의 자녀라는 인식을 지울 수는 없겠죠? ”(D)

2) 남한생활에 대한 만족

통합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남한생활의 장점이나 만족감을 많이 언급하였다. 개인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변화시켜 동화되는 것을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한국의 다양한 제도적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적응이라 인식하였으며, 그것은 그들의 주요한 자녀양육 수단이기도 하다.

“여기는 애들이 살기 좋게 되어 있어요. 놀 곳이 많아요.”(D)

남한생활의 만족은 자녀양육을 위한 가정 외적 환경지원뿐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부모 역할 분담에 대한 만족을 포함하였다.

“우리 아빠(배우자)는 애와 정말 잘 놀아줘요. 아빠가 있으면 애가 저한테 안 붙으니까 제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빠 오기 전에는 애랑 놀아줘도 아빠가 오면 전 그때부터 저녁차리고 그래요.”(D)

3) 목적지향적 선택

통합유형의 자녀양육 방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목적지향적인 선택에 의해 나타난다. 이들은 변하지 않는 탈북자로서의 경험과 정체성, 그리고 남한에서의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2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모든 경우에 있어 더 만족스러운 혹은 더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보고한다. 탈북의 이유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전이었다는 점에서 통합유형의 연구 참여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아이한테 다 해주고 싶어요. 내가 못한 거 다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이 많아야 다 해줄 수 있잖습니까. 그러려고 넘어왔으니까 열심히 돈벌어서 다 해주고 다 누려야지요.”(E)

“가정에서 가르치고 하는 것은 더 엄격하고 그런 게 좋아요. 북에서는 상상도 못해요. 여기 애들은 버릇 없이 구는 거 많이 봤어요. (중략) 때려서도 그렇게 가르쳐야죠.”(D)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을 이해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탈북이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삶의 경험을 가진 대상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라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 때 양육과 관련된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 양육방식을 선택하는 과정이 어떠한 미시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관련 선행연구들이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주력하였다면, 본 연구는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바탕으로 자녀양육 경험에서 나타나는 북한이탈여성들 간의 차이점과 독특성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의 수집은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의도표집과 눈덩이표집을 통해 인천시에 거주하는 7명의 북한이탈여성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Moustakas(1994)가 제안한 단계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47개 의미요소와 11개 주제로부터 도출된 4개의 범주(자녀양육의 어려움, 나와는 다른 존재로서의 자녀, 남한사회에 대한 원망과 기대, 양육전략 찾기)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북한이탈여성들은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자체로서의 어려움과 함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정보공유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의 과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신과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정체성이 다를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남한 생활경험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양육신념에 따라 다양한 양육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분리, 동화, 통합의 3가지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각 유형의 명명화를 위해 Berry(1997, 2002)의 문화접변 이론을 발전시켜 민족정체성의 유지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라는 2가지 개념으로 문화접변 전략을 구분한 Castro(2003)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변화가 발견되지 않은 것은, 4개 유형 중 주변화가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인다는 기존 문화접변 연구들(Castro, 2003; Lieber et al., 2001)의 일관된 결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는 본 연구에서의 분류유형이 이중 문화에 대한 개인의 정체성과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문화접변 유형이 아닌 자녀양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문화의 수용정도에 국한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본 연구에서 발견된 유형은 양육에 대한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이며,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2가지 양육문화 중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주변화 유형은 쉽게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분리유형의 미시적 이데올로기를 가진 연구 참여자들은 탈북이후 남한사회에서 겪은 편견과 낙인, 소외감 등의 경험을 토로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낙인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남한사회와 울타리를 치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북한이탈여성들끼리 분리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된다. 분리유형에 속한 연구대상자들은 그들끼리 어울리며 자녀양육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경험의 동질성이나 공감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고 또 편하다고 인식한다. 이는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정보의 정확성이나 양의 측면에서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남한 사회로부터의 편견이나 혹은 경험의 동질성, 지역적 혹은 직

업적 동일성 등에 의해 분리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소극적 분리의 과정이라면, 남한의 문화적 이질감에 따른 분리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분리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참여자 7명 중 4명이 분리유형으로 구분되었으며, 2명이 통합, 1명이 동화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결과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양적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유형별 분포가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중 분리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과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소수민족의 문화접변 전략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문화접변 4가지 유형의 분포가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의 순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한다(Castro, 2003). 주류사회의 배경이나 소수민족의 주류사회 내 위치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소수민족과 한국의 북한이탈주민을 비교하는 것은 다소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분리유형이 주류사회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적응결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Castro, 2003; Phinney, 1990; Phinney, Ferguson, & Tate, 1997)의 결과는 북한이탈여성의 한국 내 적응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한이탈여성들의 자녀양육 유형에서 분리의 형태가 많이 나타난 것이 문화적 이질감이나 북한식 양육태도의 선호성 등에 의한 적극적 선택이 아니라 부정적 편견이나 지역적 제한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극적 선택이라면, 개인의 미시적 이데올로기가 외부환경의 영향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외부의 부정적 환경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동화유형 미시적 이데올로기는 자신과 다른 존재로서의 자녀정체성과 남한사회에 대한 만족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연구 참여자는 남한사회의 차별을 극복하고 나와 다른 존재로서의 자녀가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문화를 받아들이고 한국의 방식으로 교육한다고 이야기 한다. 동화유형은 남한의 복지제도나 교육제도에 만족감을 표현하였고 자녀양육에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으나 이와 함께 주변화에 대한 우려도 볼 수 있다. 즉, 어쩌면 완전한 남한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로부터의 의도적 고립이 사회적 네트워크의 상실이나 약화로 나타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

동화와 분리유형은 전혀 다른 자녀양육적 이데올로기로 보이지만 남한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낙인화에 대한 반응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즉, 남한사회의 편견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남한사람 되기’를 선택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의 양육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넷째, 통합유형으로 분류된 연구 대상자들은 남한사회로부터의 편견을 경험하기는 하나 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예상할 수 있는 반응으로 이해한다. 더불어 과거 북한사람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인지하며 정체성의 변화가 쉽지 않음을 언급하였다. 여기에 남한의 다양한 복지제도와 자원의 풍족함 등에 대한 만족은 이들로 하여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통합적 자녀양육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다. 북한과 한국의 자녀양육 문화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중 취사선택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통합유형의 미시적 이데올로기는 그들이 탈북을 선택하는 이유와 연결해볼 수 있다. 즉, 획일적이고 억압된 빈곤의 사회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

는 것은 그들이 탈북한 이유임과 동시에 삶의 목표이다. 그들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회적 제약이나 편견 등에 개의치 않고 현실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좋으려고 왔으니까”의 의미요소는 통합유형의 자녀양육 원리를 잘 드러낸다.

다섯째,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을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실제로 초등학생 또는 청소년 자녀에 대한 양육을 분석한 연구들에서는 북한이탈가정의 어머니와 자녀 간의 세대차이 또는 갈등이 주제로 도출되었다(이기영 등, 2014; 홍나미 등, 2010). 그러나 영유아기 자녀양육을 분석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와의 직접적인 세대차이나 갈등경험이 주요 의미요소나 주제로 도출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의미요소 중 ‘예측하기 어려운 자녀의 미래’와 ‘자녀에게 전이되는 편견 경험’ 등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본 연구 참여자들만의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가 중요한 언어발달 시기라는 점에서 몇몇 연구 참여자는 북한식 단어사용이나 억양이 자녀에게 모방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 밖에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이야기하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소소한 일상경험은 동일한 연령대의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본 연구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남한사회로부터 편견을 경험했다고 이야기 했다. 물론 개인에 따라 이러한 편견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혹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려하는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그로 인해 어떤 이들은 남한 사람들과는 거리감을 두는 분리유형의 미시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의 긍정적 적응과 관련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과제라 하겠다. 가치관의 변화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분리유형의 어머니들 중 북한이탈여성들끼리의 결속이 지역적으로 한 곳에 정착하거나 동일한 취업처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보고는 우리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방식이 그들로 하여금 분리유형을 선택하게 하는 비의도적 요소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적응정책은 동화의 방식을 강조하지만 사회적 편견의 장벽이 있는 상태에서의 동화는 오히려 분리로의 선택을 강요하게 될 수 있다.

셋째, 분리유형이나 동화유형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의 접근에 제한점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이집이나 복지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을 정보의 통로로 활용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동화유형의 경우 사회적 지지 및 지원네트워크의 부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이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녀

양육 관련 미시적 이데올로기 유형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분리, 동화, 통합의 3가지 유형이 발견된 후 더 이상 새로운 유형이 도출되지 않아 7명으로 연구 참여자의 표집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연구 참여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 주변화나 혹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자녀양육 유형도 발견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 경험도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기 자녀의 어머니로 연구 참여자가 한정되었으나, 이후 연구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영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면 또 다른 양육경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현상학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영유아기 자녀에 대한 양육경험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북한이탈가정 어머니의 자녀양육 경험을 전체로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그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적 관점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파악할 수 있는 차별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과 일상생활 적응은 물론, 북한이탈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실용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차연 (2005).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61-80.
- 권정윤, 조혜영, 김미경 (2013). 북한이탈주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및 양육 특성이 자녀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4), 275-296.
- 김성남, 양옥경 (2015).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2(1), 5-38.
- 김영수 (2000). 북한 이탈주민의 가족문제. **사회과학연구**, 9, 102-117.
- 김영하 (2010). 다문화사회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문제. **윤리교육연구**, 21, 223-247.
- 김재엽, 류원정, 김지민 (2014). 탈북여성의 생활사건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연구: 외상경험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46, 85-107.
- 박현정, 김윤수, 박호란 (2011). 근거이론을 이용한 새터민 어머니의 양육경험의 변화과정. **아동간호학회지**, 17(1), 48-57.
- 이금순 (2006). 여성이주자의 사회적응과정 연구: 북한이탈주민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5(1), 191-234.
- 이기영, 김민경, 백정원 (2014). 중국 출생 자녀를 둔 한국 거주 북한이탈여성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213-240.
- 이기영, 성향숙 (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7(11), 243-271.

- 이부미 (2005). 남한사회에서의 탈북부모들의 역할적응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아동권리연구*, 9(4), 691-726.
- 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23(2), 147-184.
- 장정은, 최정숙 (2015).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46(4), 375-419.
- 정진경, 정병호, 양계민 (2004). 탈북청소년의 남한학교 적응. *통일문제연구*, 16(2), 209-239.
- 최희, 강현민 (2016). 탈북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8(3), 87-100.
- 통일부 (2016). **북한이탈주민 입국인원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에서 2016년 11월 30일 인출
- 홍나미, 이인정, 김고은, 박근혜, 최여희 (2010). 북한이탈여성의 자녀양육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연구*, 41(1), 307-343.
- 홍누리, 김희진 (2013).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북한이주민가정 어머니와 일반 저소득가정 양육태도와 사회적지지.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217-236.
- 홍승아 (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 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5(2), 173-205.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68.
- Berry, J. W. (2002).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 M. Chun, P. B. Organista, & G. Marin (Eds.), *Acculturation: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search* (pp. 15-3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igner, J. J., & Gerhardt, C. (2013).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9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Castro, V. S. (2003).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reswell, J. W. (2012).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 Maietta, R. C. (2002). Qualitative research. In D. C. Miller & N. J. Salkind (Eds.), *Handbook of research design and social measurement* (6th ed., pp.143-197). Thousand Oaks, CA: Sage.
-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Fontana, A., & Frey, J. H. (2000). The interview: From structured questions to negotiated text.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645-672). Thousand Oaks, CA: Sage.
- Lee, J. (2004). The social construction of gender in contemporary South Korea: Gender micro-ideologies and gender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societal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adison, USA.
- Lieber, E., Chin, D., Nihira, K., & Mink, I. T. (2001). Holding on and letting go: Identity and accul-

- turation among Chinese immigrants.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7(3), 247-261.
- Mason, J. (2002). *Qualitative researching*. Thousand Oaks, CA: Sage.
- Morse, J. M., & Field, P. A. (1995).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health professionals*. Thousand Oaks, CA: Sage.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London, UK: Sage.
- Papalia, D. E., Olds, S. W., & Feldman, R. D. (2013). *A child's world: Infancy through adolescence* (13th ed.). NY: McGraw-Hill.
- Patton, M. (2014).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A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Phinney, J. S., Ferguson, D., & Tate, J. (1997). Intergroup attitudes among ethnic minority adolescents: A causal model. *Child Development*, 68(5), 955-969.
- Uttal, L. (1996). Custodial care, surrogate care, and coordinated care: Employed mothers and the meaning of child care. *Gender & Society*, 10(3) 291-311.
- Ward, C., & Rana-Deuba, A. (1999).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revisited.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4), 422-442.

논문투고: 16.12.15
수정원고접수: 17.01.26
최종게재결정: 17.02.04